

뉴미디어, 일상생활, 사회이론

마크 포스터의 포스트철학을 중심으로

미동훈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1. 서론: 뉴미디어, 일상생활, 사회이론

이 글은 ‘뉴미디어’ 시대의 수용자의 ‘일상생활’을 관찰하는 작업의 초점은 어디에 맞추어져야 하며, 그 관찰의 결과는 어떠한 거대 ‘사회이론’의 맥락에서 보다 선명하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을 시론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준비되었다. 이 글의 논의는 우선 일상생활이라는 사회학적 개념이 채용되었을 때 이는 뉴미디어의 수용자를 어떻게 보는 것을 의미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출발한다. 이어서 뉴미디어가 야기하는 우리 수용자 일상생활의 통제양식의 변화상을 설명한다. 그리고 일상생활의 새로운 통제양식을 설명하고 있는 기존 비판사회이론에 대한 대안적 관점으로서의 ‘포스트철학’의 가능성을 개진하고자 한다.

사회학적 개념으로서의 일상생활(everyday life)을 거론하지 않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삶의 체험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음이 사실이다. 일상생활의 개념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는 곧 매일 되풀이되는 삶의 체험 그 자체이다. 따라서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는 진기하고 특별한 사건은 일상생활의 일부가 아니다. 그러나 어떠한 특별한 사건도 일상생활의 배경을 벗어나서는 일어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일상생활은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진부하며, 따라서 중요하지도 않은 사소한 것들이 많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만들어지는 의미들은 대부분 피상적인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한 사회를 관찰함에 있어서 그 구성원의 일상생활을

살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없다. 르페브르(Lefevre)의 표현을 빌리면 일상생활은 실존 그 자체이다. 결코 이론적으로 기재되기 쉽지는 않지만, 여전히 가장 적나라한 삶의 현장임에는 틀림없다. 많은 경우 그것은 변화되어야 할 대상임에 틀림없지만,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다(박재환 역, 1994: 24-25).

지금까지의 일상생활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¹⁾ 그 첫째는 사회구성원의 일상생활을 사회구조, 사회적 맥락과 단절시킨 채, 주로 미시적 관찰의 대상으로 국한시켜 파악하는 관점이다. 미국 미시사회학의 양축을 이루고 있는 가펩클(Garfinkel)의 ‘당연시 되는 세계로서의 일상성,’ 그리고 고프만(Goffman)의 ‘일상적 과업 수행’의 개념이 일상생활에 대한 미시적 관찰의 대표적 예이다(Kinloch, 1977: 260-261, 271-273). 한편 일상생활에 대한 사회학적 탐구의 두 번째 관점은 수용자의 일상생활을 단순히 미시적 수준의 관찰대상에 국한시키지 않고, 이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르페브르가 거론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소외(alienation)의 탐구’의 문제와 관련된다.

르페브르는 일상생활의 연구를 사회구성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곧 그 자신이 거론한 다음의 관찰결과로 이어진다.

현대인의 삶은 현대의 기술문명과 소비적 특성에 의해 끊임없이 소외당하고 불만의 상태에 빠지고 있다. ... 소외의 이론과 총체적 인간에 대한 이론이 일상생활의 비판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된다. ... 일상생활에 대한 비판적 연구의 목적은 새삼스레 사회학의 또다른 한 새로운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이는 사회학이 문제삼는 그 전체성에 대한 총체적 비판으로부터 출발한다(박재환 역, 1994: 264, 270).

1) 일상생활에 대한 사회학적 논의는 ① 24시간의 배분, ② 일상의 의식화와 상호작용의 의례, ③ 미시적 사회학에서 거시적 사회학으로의 확대, ④ 사회학적 개념으로서의 불안에 대한 고찰 등 네 가지의 큰 영역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중 ①, ②, ④는 미시사회학적 접근에 가까운 한편, ③은 미시적 관찰대상을 거시적 맥락과 상황에서 이해하려고 한 시도이다(박재환 역, 1994: 50-52).

르페브르가 시사한 바를 중심으로 뉴미디어 시대의 수용자 일상생활을 관찰한다면, 이는 곧 수용자가 필연적으로 겪는 사회적 소외의 문제에 대한 관찰을 의미한다. 그러면 뉴미디어가 야기하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소외의 문제를 설명하는 데 기존의 비판사회이론은 어느 정도의 유용성을 갖고 있는지 검토하는 작업이 따라야 한다.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등 전통적인 대중매체가 지배적이었던 시기의 비판사회이론은 예외 없이 커뮤니케이션 방송모델(broadcast model of communication)을 전제로 하였다. 방송모델의 전제하에서 미디어 수용자는 행위적 통제의 대상이다. 전통적 대중매체의 행위적 통제기능에 대한 기존 비판사회이론의 논의는 대략 다음의 두 가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Poster, 1995: 4-5). 그 첫째는 대중매체의 강력한 정치적 효과에 의해 미디어 수용자들은 수동적 객체의 위상으로 전락하였다고 보는 매우 비관적인 시각이다.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사회이론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와 대비되는 두 번째 시각 역시 전통적 대중매체가 헤게모니의 운용에 의해 여전히 효과적으로 수용자를 통제하고 있다는 점에는 일단 동의한다. 그러나 수용자 일상생활의 미시수준에서의 저항이 계속 있어 왔다고 본다. 즉 여전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관점에서 전통적 대중매체 수용자상을 정의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두 번째 관점의 대표적인 입장으로는 영국의 문화연구그룹과 미셸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의존하는 미래사회의 뉴미디어는 기존의 방송모델과는 다른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포스터(Poster)는 그의 최근 저서(1995)에서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을 쌍방향적(two-way), 탈중심적(de-centralized) 미디어라고 특징 지우고 있다. 포스터의 설명에 의하면, 초고속 정보망, 그리고 위성방송, 컴퓨터, 전화 등 기존의 제1세대 전자미디어들이 융합된 형태의 멀티미디어와 제2세대 전자미디어는 기존의 방송모델의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 개념들 간의 경계를 붕괴시키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관계의 통합체를 가능하게 한다(1995: 18-20). 이 관계가 곧 제2세대 미디어 시대에 새로이 등장한 언어적 통제 기제이다. 포스터에게 있어서 제1세대 전자미디어

의 통제기능을 설명하는 데 유용했던 커뮤니케이션 방송모델은 더이상 다음 세대인 디지털 미디어의 수용자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지 않은 것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방송모델은 포스터에게 있어서 하나의 근대주의적 신화(modernists' myth)로 비추어 진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위에서 언급된 커뮤니케이션 방송모델의 두 가지로 대비된 수용자상 중 그 어느 것도 뉴미디어 시대의 수용자상을 적절히 설명하는 데에 한계를 갖는다. 이에 따라 포스터는 근대주의적 패러다임의 극복과 아울러, 한 걸음 더 나아가 언어적 통제의 규명을 위한 포스트철학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이 글의 다음 절에서는 우선 뉴미디어 시대가 불러올 일상생활의 변화를 뉴미디어의 테크놀로지적 특성과 연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어서, 포스터가 제기하고 있는 포스트철학의 요체와 그의 포스트철학이 뉴미디어의 일상생활의 설명에 대해 갖는 유용성 여부를 개진하고자 한다.

2. 제2세대 미디어의 수용자상: 바우만(1996)을 중심으로

요즈음 우리주위에 모습을 들어 내고 있는 새로운 미디어들의 공통적인 테크놀로지적 특성이 디지털화(digitalization)라는 점에는 아무 이견이 없다. 특히 디지털 영상압축 DVC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보다 고급화된 다양한 정보가 쌍방향적으로 대량 유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디지털이라는 한 가지 테크놀로지적 뿌리에 바탕을 둔 개별 뉴미디어가 제조해 내는 수용자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과거의 전통적 공중파 방송매체 시대에 거론되었던 능동적, 수동적 수용자상에 대한 논란은 이제 더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 같다. 다양한 뉴미디어들, 혹은 뉴미디어 시대의 특징적 변화들이 만들어 내는 다양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묘사하는 데 바우만(Bauman, 1996)이 근대사회와 탈근대사회의 경계에 사는 일상생활의 모습, 그리고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포스트시대 문화수용자의 정체감 문제를 설명하면서 비유적으로 설명한 네 가지 일상생활의 유형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들 네 가지 유형은 각각 ‘산보객(stroller),’ ‘관광객

(tourist), '방랑객(vagabond),' 그리고 '운동선수(player)'의 유형이다.

1)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산보객'

뉴미디어 시대의 가장 특징적인 변화로는 다매체, 다채널 미디어 환경의 도래를 들지 않을 수 없다. 기존의 전통적 공중파방송 시대에는 주파대역 활용의 한계로 인해 채널 수가 절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케이블 TV가 개시됨에 따라 우리는 30여 개에 이르는 내용별로 세분화된 전문 채널을 갖게 되었다. 일반뉴스, 경제뉴스, 영화, 교육, 음악은 물론 스포츠, 바둑 전문채널도 갖게 된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지는 것이 위성방송이다. 이미 실험방송을 개시한 국내 위성방송의 사업자가 결정되고, 본격적인 방송을 개시하면 기술상 10여 개의 또다른 추가 채널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시청이 가능한 외국 위성방송의 수도 당분간 계속 늘어날 추세이다.

공중파방송 시대의 수용자 시청행위가 원하는 채널을 방문하여 머물다 떠나는 식이었다면,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그것은 방문할 곳을 확정하지 않은 채-혹은 못한 채-쇼핑할 곳을 어슬렁대며 '산보하는' 식이 될 것이다. 바우만의 미유적 설명을 인용해 보자.

다매체, 다채널 시대의 수용자의 모습은 특정한 목표 없이 쇼핑가를 배회하는 산보객의 그것과 매우 비슷하다. 산보객은 그날 오후에 특별히 할 일이 없다. 뚜렷한 욕심도 없다. 매우 소극적이며, 따라서 외부의 자극에 매우 약한 존재이다. 또한, 이들은 리모콘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리모콘을 이용한 채널산보는 마치 쇼핑물을 한적하게 걸으며 눈요기하고, 마음에 들면 충동적 구매를 하고, 다리가 아프면 아무데나 주저앉아 쉬다 가는 산보객들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다. 잘 만들어진 쇼핑몰은 상점와 상점, 거리와 거리를 교묘하게 연결한다. 이는 결국 산보객의 잠재적 소비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여러모로 리모콘식 채널, 프로그램 쇼핑과 유사하다(Bauman, 1996: 26-28).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비록 산보객으로서의 수용자이기는 하지만, 이들이 어느 채널에 들어가, 얼마나 머무느냐, 또한 채널을 통해 얻은 정보

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정보격차(information gap)가 더욱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보격차 심화로 인해 경제, 정치적 불평등구조가 심화될 우려도 있다. 일면 테크놀로지의 급속한 보급과 공유로 인해 정보격차 문제는 상당수준 극복될 가능성이 보인다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들린다. 실제로 1994년 미국의 멀티미디어 이용 최종소비자의 약 56%를 차지했던 전문가 그룹의 비율은 1997년에는 약 7% 정도로 급격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1994년 5%에 불과했던 가정용 멀티미디어를 이용하는 최종소비자의 비율이 1997년에는 64%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Aston & Schwarz, 1994: 18-23; 황현탁, 1995: 173-174에서 재인용). 그러나 문제는 가정용 멀티미디어의 이용률 증가가 곧 정보의 평등을 의미하는 지표가 될 수는 없다는 점에 있다. 동일한 테크놀로지를 소유한 개인들 간에도 그 테크놀로지의 활용능력에는 엄연히 차이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미래 정보사회에는 테크놀로지의 소유여부보다 그 테크놀로지의 응용능력의 차이에 의해 정보격차의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며, 이는 결국 사회구성원 간의 화합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

2) 쌍방향 미디어 시대의 ‘관광객’

뉴미디어의 또 다른 특성은 쌍방향적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전통적 공중파방송 시대에는 다수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뿐이었다. 공중파방송의 아날로그 채널은 쌍방향 상호작용을 매개할 정도의 채널 용량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압축화된 디지털 영상을 주고받는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쌍방향 상호작용을 소화할 정도의 채널 용량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이에 힘입은 뉴미디어의 유형으로는 주문영상 서비스 VOD, 주문뉴스 서비스 NOD, 주문음악 서비스 MOD, 화상회의, 상호작용적 게임 등을 들 수 있다.

쌍방향 미디어 시대의 수용자는 바우만 교수의 비유적 설명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일상생활 유형인 관광객의 모습과 유사하다(Bauman, 1996: 29-31). 관광객은 모종의 목표의식을 갖고 여행을 설계한다. 다분히 의도

적이다. 또한 이성적이다. 이성적인 여행설계를 위해 이들은 호주머니 속의 지도와 끊임없이 대화, 상호작용한다. 관광객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다. 그들의 돌아갈 집은 그들 자신들이 누구이며,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설명하는 정체감의 원천이 된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낯선 관광지에 도착한 관광객이 전적으로 의지하는지도 자체가 늘 전지전능한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지도는 몇 가지 특징적인 강조점을 중심으로 현실세계를 단순화한 것이니만큼 분명 한계가 없을 수 없다. 문화여행지도를 갖고 극장, 책방은 쉽게 찾을 수 있으나 우체국, 관공서를 찾기는 힘들다. 즉 관광객과 상호작용하는 지도가 갖고 있는 관심사, 강조점에 따라 그날 그날의 가볼 곳, 나아가서는 여행의 즐거움과 가치까지도 결정한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수용자가 상호작용하는 대상으로서의 지도, 즉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소프트웨어 시장은 미국, 일본 중심의 다국적, 글로벌 생산자들에 의해 독점되고 있다(김영석, 1996: 436). 따라서 쌍방향 미디어 시대의 관광객들은 자신의 고유한 취향과 관심을 쫓는 여행을 한다기보다는, 글로벌 생산자가 나름대로의 산업전략에 맞추어 만들어서 제공하는 지도를 쫓는 여행을 하기 쉽다. 결국 내 돈을 쓰고 남의 여행을 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개별 관광객 나름대로의 개별적 정체성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대치하는 글로벌 소비자만이 남게 된다.

3) 웹 거미줄 속의 '방랑객'

뉴미디어 시대의 수용자가 피해갈 수 없는 또 다른 매체환경은 웹(web)의 거미줄이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컴퓨터가 매개하면서 열린 멀티미디어의 시대는 수용자를 전세계의 통신망, 데이터베이스를 묶는 웹의 거미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 순수한 통신개념으로서의 인터넷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터넷과 방송의 기능이 결합된 새로운 미디어인 인터넷 TV가 등장하면서 방송의 수용자들은 웹의 세계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제 텔레비전은 막연히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고, 찾고 따라가기의 대상으로 우리 옆에 서 있다.

웹이 주도하는 또 다른 뉴미디어 시대의 수용자상은 앞서 거론한 산보객, 관광객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인터넷, 인터넷 TV로 대표되는 웹 미디어 시대의 수용자 모습은 말 그대로 방랑객(vagabond)과 유사하다(Bauman, 1996: 28-29). 방랑객은 어느 누구로부터 어떠한 통제도 받기를 거부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방랑객은 법과 규범의 굴레에서 자유로운 존재이다. 세상에 무서운 것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무법자이기도 하다. 어느 정보원(源)이건 마음내킬 때 찾아가 문을 두드린다. 다양한 정보들을 하나로 묶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복제술에 뛰어난 재주를 갖고 있다. 여기에도 별다른 제약, 통제가 없다.

모든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웹의 방랑객은 자칫 자신이 복제한 정보가 자신의 지적 소유권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가능하게 한 정보공유 개념의 확대에 의해, 지적 소유권(copyright) 개념이 크게 위협받게 된다. 따라서 영상, 음향자료가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검색, 저장, 편집기능에 의해 무제한 복제되고, 또 복제된 자료가 다시 복제되어질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 소프트웨어는 더이상 소프트웨어 제작사의 지적 소유권의 영역에 가만히 놓여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현행 저작권법은 새로운 매체인 멀티미디어 판권을 인정하고, VOD, VOT 등 주문형 서비스, CD-ROM, V-CD 등 대화형 매체를 이에 분류하고 있다(이인규 등, 1995: 129). 그러나 이는 영상 소프트웨어 제작자와 유통자 관계에서의 판권을 의미할 뿐, 다수 멀티미디어 수용자인 일반 이용자와의 관계에까지 실효성 있게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웹 거미줄 속의 개별 수용자와 제작자 사이의 관계에까지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웹의 거미줄망 속의 방랑객은 정보복제, 활용의 무법천지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4) 가상현실 속의 '운동선수'

마지막으로, 뉴미디어 시대의 수용자가 접할 새로운 매체환경으로는 가상현실의 공간을 들 수 있다. 이미 가상현실의 테크놀로지 수준은 시각

과 청각을 통한 체험의 전달이라는 전통적 영상매체의 경험단계에서 크게 한 걸음 더 나아가 있다. 오늘날의 테크놀로지는 후각, 촉각 등도 총동원한 입체적, 다차원적 가상현실의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가상현실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수용자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생동감나는 컴퓨터게임, 영화 속의 체험에 이를 수 있다. 다차원적으로 재현되는 가상현실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수용자의 모습은 경기장에 나선 운동선수와 유사하다(Bauman, 1996: 31-32). 도쿄 경기장의 한일 양국 축구선수들은 양국 국민의 자존심 다름이라는 현실을 양 어깨에 지고 일종의 가상현실적 대리전을 치르는 것이다. 축구가 양국의 국제정치, 경제적 위상이나 민족적 우월성을 가름하는 척도는 결코 아님이 분명하다. 그러나 경기장의 양국 선수들은 마치 축구가 그 척도인 양 생각하고 온 몸을 던진다. 양국 응원단, 텔레비전을 통해 시청하는 양국 국민들도 그렇게 착각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멀티미디어가 주도할 미래의 정보사회에서는 치밀하게 복제된 가상의 모방물(replica)이 투박하게 만들어진 창작품(creation)보다 더 큰 상업적 가치를 갖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디지털 압축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다양한 음성, 영상정보의 대량 탐색, 저장, 편집, 복제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창작물보다 쉽게 만들어질 수 있음과 동시에 시장성도 높은 모방물이 문화의 각 분야에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공간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몇 년 전 개봉된 영화 <할리우드 키드의 생애>에서 다루어지는 부류의 영상물에 대한 모방행위가 아날로그 공간이 지배하던 시대와는 비교가 되지않을 만큼 쉬워진다. 특히 멀티미디어 사용자의 원판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법제가 치밀하지 못한 현재의 상황에서 이는 매우 우려할 문제이다(김영석, 1996: 451-454).

이상 살펴본 네 가지 유형의 인간상 중 ‘산보객’과 ‘방랑객’은 감성이 이성을 압도하는 뉴미디어 시대의 수용자상을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들에 비교해 볼 때, ‘관광객’과 ‘운동선수’는 다분히 이성적이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들의 이성적 관광, 운동경기 행위도 결국은 테크놀로지의 객체로 추락하고 마는 경우가 많다. 제2세대 디지털 미

디어의 수용자는 일상생활 속의 절대적인 시공간의 한 지점에 위치하면서 다른 지점들을 통제할 수 있는 확고한 입지를 누리고 있지 못하게 된다. 대신 수용자는 언어의 전자적 전달에 의해 지속적으로 와해되면서 새로운 형태를 부여받는다. 포스터의 설명을 빌리면 주체(subject)로서의 참여자는 데이터 베이스에 의해 증대되고, 전자우편 메시지에 의해 분산되며, 또 텔레비전 광고에 의해 탈맥락화되지만, 그와 동시에 새로운 정체성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다(Poster, 1992: 308). 그러나 이 새로운 정체성도 여전히 디지털 테크놀로지라는 지배적 의사소통매체의 언어적 통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뉴미디어의 수용자에 대한 언어적 통제는 이들로 하여금 언어행위의 주체로서의 위상을 잃고 급기야는 이 언어행위로부터 소외되게 만든다.

이제 뉴미디어 수용자의 일상생활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사회이론은 무엇인가 하는 점과 관련된 앞서 제기된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자. 즉 문제는 전통적인 비판사회이론이 뉴미디어의 수용자에 대한 언어적 통제의 설명에 여전히 유용한가를 평가하는 데 있다. 전통적 대중매체 시대의 비판사회이론을 뉴미디어의 시대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제약과 한계에 대한 논의는 곧 근대주의적 패러다임과 이에 대비되는 포스트철학의 논쟁과 연관된다.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제2세대 미디어의 특성은 다채널, 쌍방향, 거미줄식 커뮤니케이션망 형식, 가상현실적 특성 등에 있다. 즉 종래의 소수제작자(a few producers)와 다수소비자(many consumers) 모델과 일방형 의사소통을 전제로 한 커뮤니케이션의 방송모델과는 기본적인 전제를 달리한다. 기존의 비판사회이론이 제1세대 미디어의 설명에 유용하였다면, 이들 시각이 다채널 시대의, 쌍방향적, 거미줄 형식의 매체 현실 속에서 가상현실을 경험하며 사는 제2세대 미디어 시대의 수용자를 설명하는 하나의 사회이론으로 여전히 가치를 갖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에 대한 대안적 관점, 혹은 설명들은 무엇인가? 이 글의 다음 절에서는 포스터의 최근 저서(1995)의 주요 논점들을 중심으로, 제1세대 미디어를 설명하는 비판사회이론의 기여와 한계, 그리고 제2세대 뉴미디어 시대의 수용자상의 설명을 위한 대안적 관점으로서의 포스트철학의 접목

가능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3. 포스트철학의 가능성: 포스터를 중심으로

1) 비판사회이론에 대한 비판

포스터는 20세기 들어 계속된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진보에 주목한다. 20세기 초반 이후 아날로그 테크놀로지의 보편화를 통하여,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보급에 의해 우리 일상의 공간과 시간은 빠른 속도로 정복되고 있다. 비판사회이론가들 사이에는 이들 테크놀로지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측면에서의 모종의 정치적 효과들²⁾ 둘러싼 다양한 논쟁이 있어 왔다. 그간 이 논쟁의 대상은 주로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매체 등 제1세대 전자미디어들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방송모델이었다(Poster, 1995: 3).

뉴미디어의 시대에 들어서는 즈음, 포스터는 제1세대 미디어, 즉 방송모델의 테크놀로지적 특성과 문화, 그리고 이의 정치적 함의에 대한 논쟁을 다시 한 번 살펴본다. 그는 특히 테크놀로지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체의 정립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다. 결국 포스터는 다시 푸코적, 탈현대적 관심사로서의 신체의 문제, 즉 문화와 일상의 재조직화의 문제로 돌아가게 된다.

나는 대중매체 제2세대의 임박한, 그리고 광대한 문화적 재조직화를 설명하는 비판사회이론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내가 이 작업을 시작하는 동기는 어느 특정 관점이나 이론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함이 아니고, 문화적 변화에 있어서의 그들(제2세대 미디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이다(Poster, 1995: 4).

2) 여기에서 정치적 'political'이란 개념은 전통적 정치학 'politics'의 범주가 아닌,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를 위한 '상징의 조작(manipulation)'과 '왜곡(distortion)'에 관심을 갖는 '좌파 문화정치학(cultural politics)'적인 의미로 쓰였다.

포스터의 관점에서 재조명한 비판사회이론의 제1세대 미디어에 대한 평가는 아도르노에 대한 재우미를 중심으로 시작된다. 이를 위해 먼저 인용한 것이 뒤하멜(Duhamel)이다. 뒤하멜의 제1세대 미디어에 대한 비판은 다음에 인용된 뒤하멜 자신의 영화 미디어에 대한 놀랄만큼 노골적이고, 일면 순진하기조차 한 적대감의 표명에서 매우 극명하게 나타난다.

뒤하멜에게 있어서 이는 (영화는) 중세적 노예들을 위한 오락이고, 자신의 걱정을 소비하며 사는 저교육층과 비열하고 비참한 피조물들을 위한 유희이다. 집 중력을 요구하지도 않고 지적 능력을 전제로 하지도 않으며, 엉뚱하게도 어느날 갑자기 관객들이 로스앤젤레스의 ‘스타’가 되도록 만들기도 하는 한편, 관객들의 가슴에(문명의) 빛을 비추거나 희망을 일깨워 주는 데 조금도 기여하지 않는, 하나의 불거리에 불과하다(Poster, 1995: 4-5).

뒤하멜의 관점은 영화가 대중을 위협천만인 지옥으로 인도한다고 보는 문명 중심, 현대성 중심 사관의 입장에서 서 있는 지식인과 예술 엘리트 그룹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뒤하멜의 관점은 영화 등 제1세대 전자미디어가 만들어 내는 대중문화를 하나의 가뻛고, 가치 없는 유희적 문화(culture-as-fluff)로 파악하고 있는 보수적 지식인들의 관점 중에서도 가장 과격한 부류에 속한다. 포스트는 예술가와 지식인들이 일반적으로 미디어와 현대사회의 대중성을 다분히 비하(contempt)하여 설명하고 있는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비하의 첫 번째 기능은 고급문화를 차별화되고 고귀한 그 무엇으로 보존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하는 면밀한 관찰, 분석 없이 미디어 우선주의를 거부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된다. 즉 미디어의 그 무엇인가가 그들의 지식인으로서의 정체감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의 인문학의 제반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미디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묻혀지고 있다 ... 한편, 비하의 두 번째 기능은 소수제작자와 다수소비자를 전제로 하는 방송모델이 지배하는 제1세대 미디어가 지식인들의 저작권을 위협하고, 문화적 생산품의 질을 저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반응이다. 이는 제1세대 미디어의 현대성 논리가 지배적인 현대사회에서 자율적 주체로 스스로의 모습을 완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Poster, 1995: 5-6).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몇몇 핵심저술 들에서도 뒤하멜 식의 관점의 자취를 찾아볼 수 있다. 포스터는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미디어에 대해 남긴 논저 중 가장 정교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례인 아도르노(Adorno)와 호르크하이머(Horkheimer)의 『계몽의 변증법(The Dialectic of Enlightenment)』에서조차도 현대주의적 지성인들이 갖고 있는 수용자의 문화적 경험에 대한 무감각과 무관심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다음의 인용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아도르노에게 있어서 제1세대 방송모델은 문화적 파시즘적 성향마저 보인다.

(제1세대 미디어는) 소수생산자들과 다수의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다수 소비자들 간의 대조적인 보유기술의 차이를 바탕으로 한 미디어 문화기술이다 ... 전화는 가입자로 하여금 여전히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허락한다. 따라서 자유롭다. 한편 라디오는 모든 참여자를 청취자로 만들고, 권위적으로 그들을 모두 똑같은 방송 프로그램에 굴종하게 한다. ... 언어가 (전파를 타고) 어디든 휘젓고 다닐 수 있다는 엄청난 사실은 그 내용을 대체한다. 라디오의 속성은 이 매체가 화자 중심의 언어이며, 잘못된 명령을 만들고, 메시지에 절대성을 부여하는 데 있다(Poster, 1995: 6).

아도르노의 이러한 설명은 그 자신이 향후에 관찰한 텔레비전 매체에 대한 논의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텔레비전에 대한 반응은 자유로운 주체의 독립적이고 반항적인 반응이 아니다. 이는 무의식적이고 임의적인 성격을 갖는다. 텔레비전의 반복성, 완벽한 동일성, 그리고 편재성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동화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개인적 저항력을 저하시키는 경향조차 있다(Poster, 1995: 6).

즉 아도르노는 텔레비전의 동일한 정보신호를 광범위하게 그리고 동시에 확산시킬 수 있는 능력은 계몽의 프로젝트를 역행하게 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본다. 아도르노에 의하면 텔레비전으로 대표되는 현대사회의 매스 미디어와 날로 확산화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중요한 통합매체의 역할을 한다. 현대 대중매체의 수용자들은 더욱 불확정적이고 확산적인 모

습을 띠어 가는데, 이 과정 속에서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는 보다 더 안정적인 통합을 이루어 간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의 아도르노의 인용문은 뒤하멜의 분노와 맥을 같이 한다.

오늘날의 텔레비전 쇼를 살펴보면 그 외면적인 표면상의 메시지는 반전체주의적인(anti-totalitarian)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오히려 더욱 전체주의적인(totalitarian) 속성을 띤다. 극단적 자기만족심, 지적 소극성, 그리고 쉽게 거짓에 속아 넘어가는 경향 등이 그 대표적인 예들이다(Poster, 1995: 7).

아도르노의 미디어에 대한 평가는 그의 글 『음악의 물신적 성격과 듣기의 퇴행에 관하여(On the Fetish-Character in Music and the Regression of Listening)』(1939)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다. 이 글에서 아도르노는 일용품의 물신주의에 대한 맑스적 분석을 일상적 음악감상의 영역, 특히 라디오 매체를 통한 음악감상의 영역에까지 다소 과감하게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아마도 소비자는 그 자신이 토스카니니(Toscanini)의 음악보다는 음악회 표를 사기 위해 쓴 돈을 진정으로 숭배하는 것 같다. 음악의 물신적 성격은 고전 맑시스트 개념들에 의해 설명된다. 듣기 문화의 퇴행은 기존의 기술결정론(technological determinism)적 논의를 재고할 것을 요구한다. ... 라디오 매체는 배경음악 등 단편적 오락의 수단으로 음악을 이용하여, 이를 남용하는 청취자들을 탈중심화(decentralized) 하는 데 기여한다. 어떠한 음악을 어떻게 듣느냐 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단지 청취자 자신이 음악을 듣고 있다는 사실 자체일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라디오는 음악의 본질적 체취를 퇴행시키고 있으며, 문화의 수준을 저하시키고 있다(Poster, 1995: 7-8).

포스터는 아도르노의 논의를 다음의 세 가지 논점에서 매우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첫째, 기술결정론적 시각에서 바라본 미디어 수용자의 특성에 관한 논의이다(Poster, 1995: 8-10). 제1세대 미디어의 일방향적 미디어로서의 특성이 바로 제1세대 미디어 수용자가 비반향적, 제한적 특성을 갖도록 만든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자계급이 자본주의에 대한 효율적인 저항능력을 상실하고, 문화산업이 계몽을

변증법적으로 수용한다기보다는 생산과 정치의 매개에 기여하고 있었던 역사적배경 하에서, 전자미디어는 일상 속에서 전제주의적 일방향 메시지를 반복함으로써 제1세대 미디어의 수용자를 수동적 위상으로 격하시키고 있다. 둘째, 아도르노가 수용자의 특성을 비판향적, 제한적으로 파악하게 된 이유는 그의 현대주의적 이론(modern theory)의 시각과 관련된다. 즉 대상을 이성중심적 관점에서 볼 때 수용자가 미디어 기술의 노예로 전락하는 모습이 보다 분명하게 보였다는 것이다. 셋째, 수용자를 자율성/타율성의 이원적 차원에서 살펴본 아도르노의 관찰도 여전히 현대주의적, 이성중심적 전제의 한계를 보여 준다.

2) 비판사회이론의 극복

포스터가 아도르노를 극복하려는 시도는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첫째, 제1세대 미디어에 대한 비판사회이론의 설명이 보여주는 기술중심적, 이성중심적 관점에 대한 회의이다. 포스터는 아도르노 등이 과연 기계와 인간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사회공간의 새로운 조건을 이론화하는 데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을 되묻는다. 이어서 현대주의적 신화에 가려 있는 수용자, 나아가 주체의 실제 모습을 발견하기 위하여 인식방법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 대안이 바로 후기구조주의적 시각으로의 전환이다.

아마도 (미디어 수용자로서의) 주체는 탈중심화되거나, 혹은 복합유형화될지도 모른다. 그 이외에 다른 개념으로 설명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용해(dissolved)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Poster, 1995: 11).

둘째, 제1세대 미디어의 전자 테크놀로지가 수용자의 자기정체성 정립 과정, 즉 주체의 구성과정에 끼치는 영향의 유형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포스터 자신의 저서인 뉴미디어의 철학(1992)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이 실제 사례연구로 응용되고 있다.

포스터의 비판사회이론과 뉴미디어에 대한 검토는 아도르노에 이어,

알튀세(Althusser)와 하버마스(Habermas)로 넘어가고 또 이어서 벤야민(Benjamin)과 보들리야르(Baudrillard)가 언급된다(Poster, 1995: 10-18). 포스터의 관점에서 알튀세와 하버마스는 광의의 아도르노와 동일 계열에 뿌리를 둔 근대주의적 발상에서 미디어의 기능을 파악한 관점으로 분류된다. 이들 근대주의적 비판이론가들이 제1세대 미디어의 관찰에서 가장 주목한 점은 미디어의 사회통제 기능이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으로 대표되는 커뮤니케이션 기구는 모든 시민, 즉 수용자에게 민족주의, 소비니즘, 자유주의 등 부르주아적 계급위상을 변호하는 이데올로기적 강령을 주입시킨다. ... 일반형 미디어는 사회통제의 효율성을 상당수준 제고시키는, 다분히 전체주의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Poster, 1995: 13).

다만, 하버마스의 경우는 그의 후기 연구들에서 아도르노 등과 구별되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일상생활의 평등적 공간으로서의 삶의 세계(lifeworld)라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버마스에게 미디어는 해방의 잠재성(emancipatory potential)을 가진, 하나의 이상적인 대화를 위한 환경(an ideal speech situation), 혹은 하나의 민주적인 공공영역(democratic public sphere)이다. 그러나 이 역시 하버마스 자신이 갖고 있는 근대성에 대한 낙관적 기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그러한 의미에서 근대주의적 발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포스터는 벤야민의 『기술문화(Techno Culture)』에 내포된 제1세대 미디어에 대한 새로운 관찰의 시각을 언급함으로써, 그의 주된 논지인 포스트철학, 즉 후기구조주의와 탈근대주의 시각으로 논의의 초점을 옮기고 있다. 포스터의 관점에서 바라본 벤야민(1936)의 주목할 바는 제1세대 미디어를 심미적 관찰대상으로 격상시키고, 나아가 이성중심적, 현대주의적 관점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점이다. 보들리야르에 이르러서는 비로소 제1세대 미디어가 반이성중심적 관찰의 대상으로서 읽혀질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하게 된다. 포스터는 보들리야르로 대표되는 포스트철학의 도입으로 미디어가 만들어 내는 권력구조, 통제기술, 일상생활의 관찰이 보다 용이

해졌다고 주장한다.

포스터가 지난 20여 년 동안 양산한 논저들의 공통되는 출발점은 예외 없이 유럽대륙의 비판사회이론의 전통이다.³⁾ 포스터의 주목할 만한 초기 저서 중 하나인 『생산양식과 정보양식(*Mode of Production versus Mode of Information*)』(1984)은 맑스의 비판사회이론이 갖고 있는 추상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푸코(Foucault)의 비판사회이론을 검토하고 해석한다. 포스터의 관점에서 볼 때, 맑스의 비판사회이론은 산업사회적 물질 생산을 위한 핵심기초재인 자본의 개념에 기대어 사회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며, 바로 이 사회관계를 사회변동의 핵심적 요인으로 본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생산양식 모델이다. 포스터는 맑스의 생산관계 모델과 대비하여 푸코의 사회비판이론이 갖는 유용성을 강조하기 위해 푸코의 전제가 맑스의 전제와 다른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푸코의 관심은 한 사회에서 담론(discourse)과 실제(reality)의 관계가 설정되고, 이로 인해 사회적 장(social field)을 지배양식들(dominant modes)로 구성되도록 만드는 특별한 질서가 무엇인가를 모색하는 데 있다(Poster, 1984: 50).

포스터의 관점에서, 맑스의 생산양식 모델은 산업사회 구성원의 현실세계의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을 도외시함으로써 스스로 추상적, 형이상학적 모델로서의 한계를 자초했다고 본다. 이어서 포스터는 신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관찰의 초점을 미시적, 구체적 수준으로 재조정할 푸코

3) 포스터는 자신의 이론적 입장을 정리하면서 광의의 '비판사회이론'이라는 개념을 즐겨 쓴다(1984, 1992, 1995). 굳이 포스터의 논저에 흐르는 일관된 이론적 정향을 정리해 본다면: ① 적극적으로 맑스적 경제유물사관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1984), 프랑크푸르트 학파 계열의 서구 맑스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② 역사적, 문화주의적 관점과 대비하여 언어현상 중심적 설명을 지향한다는 점에서(1984), 언어적 구조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며, ③ 역사 속의 언어현상을 설명하면서 새로운 의사소통 매체가 만들어 내는 탈중심, 탈구조적 언어체계에 주목한다는 점에서(1992), 후기구조주의, 탈현대주의의 영향권 하에 있는 한편, ④ 오늘날의 우리 일상의 문화현상을 설명하면서 기술-문화(TechnoCulture)라는 개념을 즐겨 사용한다는 점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1995), 기술중심적(techno-centric) 역사관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의 관점에 다음과 같이 주목한다.

푸코는 산업사회에서의 구성원의 모습이 물신화되어가는 과정보다는, 이들의 신체가 무엇에 의해 특징지어지고 또한 무엇에 의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일상의 시계열상에 배치되며, 또 때로는 집산, 혹은 해체되는가에 주목한다. ... 푸코는 신체의 개념과 문제를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었다. 이는 그가 맑스적으로 대상을 관찰한 것이 아니고, 대상을 통제하는 권력의 기술(technique of power)을 중점적으로 관찰하였기 때문에 가능하다(Poster, 1984: 52).

포스터는 감시(discipline)와 처벌(punish)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한 권력의 통제기술이 언어적 차원에서 행사된다고 보는 푸코의 입장에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포스터가 주창하고 있는 정보양식 모델은 푸코가 제시한 바 있는 언어적 통제기술(Foucault, 1977: 35-44)이라는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여, 이를 중심으로 현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사회관계를 설명해 보려는 야심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맑스적이라기보다는 다분히 푸코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포스터의 문제인식은 그의 후속 저서들인 『뉴미디어의 철학(The Mode of Information)』(1992)과 『제2세대 미디어 시대(The Second Media Age)』(1995)에서 본격적으로 정보양식의 개념을 일상의 경험세계에까지 끌어내려 오는 작업을 거치면서 보다 구체화된다.

포스터의 정보양식 모델은 사실 하나의 도식 속에서 정연하게 사회관계를 설명하려는 시도는 아니다. 이는 사회학적 관심사로서의 사회관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자, 문제인식의 틀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포스터의 정보양식 모델에서 일관되게 흐르는 문제의식의 틀은 무엇인가? 위의 논저들에 흐르는 포스터의 문제인식은 다음의 세 가지 연구테마들—권력구조, 통제기술, 일상생활—로 요약될 수 있다.

- ① 권력구조: 현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한 사회, 혹은 한 시대의 지배적 권력구조는 무엇인가?
- ② 통제기술: 권력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사회구성원을 통제하는가?

③ 일상생활: 어떤 과정을 통해 구성원들의 일상생활이 제약을 받는가?

포스터는 위의 세 가지 연구테마들을 탐구함에 있어서 일상의 언어적 현상들을 중심으로 접근함으로써 현대사회 속의 사회관계를 설명하려 시도한다. 포스터가 일상의 언어적 현상들에 관심을 갖으면서 주목하게 된 것은 현대사회의 지배적 의사소통매체의 변화이다. 이는 곧 정보양식의 변화이기도 하다.

정보양식의 역사적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구어로 매개되던 정보양식의 시대는 문서로 매개되는 정보양식 시대로 발달했고, 현재는 전자 테크놀로지에 의해 매개되는 정보양식의 시대로 발달하고 있다. ... 구어 및 문서로 매개되는 정보양식 시대의 수용자는 합리성에 바탕을 둔 정보처리의 주체인 한편, (제2세대) 전자 테크놀로지 시대의 수용자는 '비합리적,' '탈중심적,' '객체화'의 경향을 띤다(Poster, 1992).

전자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에 의해 매개되는 정보양식 시대는 곧, 현대사회의 일상적 언어현상이 전자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편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 테크놀로지 정보양식 시대의 권력구조, 통제기술, 일상생활의 배경을 이루는 일상적 언어현상은 그 이전 시대의 그것과 다르다. 이전 시대의 정보양식이 합리적, 중심적, 주체적 특성을 띤다면, 전자 테크놀로지 정보양식은 포스터의 지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합리적, 탈중심적, 객체화의 특성을 띤다. 대상이 달라진 만큼, 대상을 보는 관점도 달라져야 한다. 포스터가 데이터베이스, 전자우편 등 뉴미디어의 해석에 푸코, 데리다(Derrida) 등의 후기구조주의 시각을 접목하는 명분이 여기에서 제공된다.

포스터는 보들리아르와 텔레비전 광고, 푸코와 데이터베이스, 데리다와 전자우편을 연결하는 다양한 적용의 경험을 거치는 동안(Poster, 1992), 전자 테크놀로지의 발달이 만들어 놓은 또 하나의 새로운 정보양식에 도전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이는 곧 그 자신이 제2세대 미디어라고 부르고 있는 새로운 전자 테크놀로지, 뉴미디어의 영역이다(Poster, 1995).

포스터는 전통적 뉴미디어의 영역과 멀티미디어의 영역을 모두 이 제2세대 미디어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들 제2세대 전자 테크놀로지 미디어가 만들어 내고 있는 제1세대와는 또 다른 권력구조, 통제기술, 일상생활의 양상에 포스터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 결론: 대안적 사회이론으로서의 포스트철학

뉴미디어 시대의 수용자는 더이상 커뮤니케이션 방송모델에서 전제로 하는 소극적 수혜자가 아니다. 수혜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인 참여자의 모습을 강하게 띠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뉴미디어의 참여자 스스로가 그 자신의 일상생활에 대한 일정한 통제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근대주의적 인간상의 전제를 배경으로 하였을 때만 가능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뉴미디어 시대의 참여자들은 여전히 테크놀로지가 만들어 내는 언어적 통제양식의 영향에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바우만이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근대와 탈근대의 경계에 사는 오늘날 우리들의 사는 모습들—산보객, 관광객, 방랑객, 그리고 운동선수—은 제2세대 테크놀로지의 언어적 통제의 대상으로서의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습을 극명하게 설명해 준다. 여기에서부터 제2세대 미디어 시대의 정보격차, 모방자 혹은 모방물의 창작자 혹은 창작물에 대한 압도, 전세계적 소비문화 양산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

제2세대 미디어의 특수한 언어적 통제양식은 이 시대의 미디어가 갖고 있는 텍스트 고유의 특성에 기인한다. 테크놀로지 학자인 테드 넬슨이 1962년 고안한 개념인 하이퍼미디어(hypermedia)는 제2세대 미디어의 텍스트 특성을 매우 유용하게 설명해 내고 있다. 여기에서 하이퍼미디어라는 개념은 주로 뉴미디어 테크놀로지가 만들어 내는 텍스트 형식 측면의 특성을 부각시키는 용어이다. 하이퍼미디어가 만들어 내는 하이퍼텍스트(hypertext)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공간, 시간적 측면의 물리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이다. 따라서 하이퍼텍스트는 그 시작도 끝도 한정적

이지 않다. 어디 장소에든, 또한 어느 시간대에든 텍스트에 들어가기와 나오기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제2세대 미디어 하이퍼텍스트의 송신자는 항상 송신자가 아니며, 수신자도 항상 수신자일 필요가 없다. 제1세대 커뮤니케이션 방송모델의 일방향적 구도와는 달리,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송신의 주체 그리고 수신의 주체는 항상 바뀔 가능성이 있고, 다수의 주체가 존재할 수도 있으며, 반면 이를 바꾸어 생각하면 제1세대적인 송수신의 주체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2세대 미디어의 하이퍼텍스트는 다중심적(multi-centered)이고, 재중심적(re-centred)이며, 또한 동시에 탈중심적(de-centered)이다(마동훈, 1996: 89). 제2세대 미디어의 언어적 통제양식이 갖고 있는 이러한 특성은 제1세대 미디어의 커뮤니케이션 방송모델의 대전제인 집중적, 일방향적, 단선적 통제양식의 그것과 매우 분명하게 대비된다.

따라서 뉴미디어 시대, 즉 제2세대 미디어 시대 수용자 일상생활에 대한 통제양식의 독특한 구조에 대한 접근은 바로 이 하이퍼텍스트라는 언어기제가 갖는 새로운 특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즉 제2세대 미디어 수용자의 일상생활은 바로 이 하이퍼텍스트의 다중심적, 재중심적, 탈중심적 언어양식에 비추어 설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근대주의적 신화를 전제로 수용자행위 측면의 효과를 주시해 온 과거의 비판사회이론보다, 정보의 새로운 언어적 재현양식, 즉 정보양식의 문제를 일상생활 속에서의 권력의 통제기술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포스트철학이라는 대안이 훨씬 더 유용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글에서는 뉴미디어가 야기하는 일상생활의 관찰에 포스트철학의 접목가능성을 시도하고 있는 포스터의 시각을 인용함으로써 뉴미디어 시대의 수용자 일상생활의 보다 치밀한 관찰을 위한 하나의 대안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 글은 보다 구체적으로 포스트철학의 어떠한 지류에서 제2세대 미디어 수용자의 일상생활에 대한 관찰이 선명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혹은 경험적인 수준에서 일상생활 속의 수용자의 모습이 얼마나 구체적이고도 치밀하게 관찰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다만 뉴미디어 시대의 일상

생활의 관찰에 최소한 하나의 유용한 대안적 이론, 혹은 하나의 관점으로 검토될 가치가 있는 포스트철학의 문제제기가 시사하는 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영석. 1996, 『멀티미디어와 정보사회』, 나남.
- 르페브르 지음. 1995, 『현대세계의 일상성』, 박정자(역), 주류일념.
- 마동훈. 1996, 「하이퍼미디어가 이끌 새로운 세계」, 《SBS매거진》 11, 《뉴미디어와 방송》 9, 86-89쪽.
- 박재환(편역). 1994, 『일상생활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 이인규·이희규. 1995, 『멀티미디어로 가는 21세기』, 인폴리오.
- 황현탁. 1995, 『한국영상산업론』, 나남.
- Aston, R. & J. Schwarz. 1994, *Multimedia*, N.Y.: AP Professional.
- Adorno, T. 1939, "On the Fetish-Character in Music and the Regression of Listening."
- Adorno, T. & M. Horkheimer. 1969, *The Dialectic of Enlightenment*.
- Bauman, Z. 1996, "From Pilgrim to Tourist: or a Short History of Identity," in S. Hall. & P. de Gay(eds.), *Questions of Cultural Identity*, London: Sage.
- Benjamin, W. 1969, *Illuminations*, New York: Schocken.
- Foucault, M., A. Sheridan, M. Smith(trans.). 1977, *The Archaeology of Knowledge*, New York: Pantheon.
- Kinloch, G. C. 1997, *Sociological Theory: Its Development and Major Paradigms*, New York: McGraw Hill.
- Poster, M. 1984, *The Mode of Production Versus The Mode of Information*.
- _____. 1992, *The Mode of Information*, London: Polity, 김성기(역), 1994, 『뉴미디어의 철학』, 민음사.
- _____. 1995, *The Second Media Age*, London: Polity.